■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77-106.
http://doi.org/10.17948/kcs.2020..89.77

【특집: 동아시아 문헌 속 개인과 개인주의】

일본 고대문학과 개인의 발견
—'나'(我)의 탐구에서 '타인'(人)에 대한 이해로—

이미숙(李美淑)*

목 차

1. 머리말
2. 일본 고전텍스트 내 1인칭 표현 '나'
3. 표현하는 '나'(我), 표현하는 개인
4. '나'에서 '타인'으로—일본 고전텍스트의 '나도 타인도'(我も人も)
5.『겐지 모노가타리』오이기미(大君)의 '나도 타인도'(我も人も)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일기문학과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나'에 대한 탐구에서 '나'를 표현해나가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도하거나 또는 자기인식을 심화시켜 타인으로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세기, 11세기 동양 고중세에 싹트고 있던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의 맹아의 양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일본 고전문학텍스트 속에 나타난 개인의 발견과 글쓰기, 그리고 자신의 내면 풍경을 직시하며 자신만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로 사고로 확장시켜나가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을 재인식하며 조망하는 등장인물들의 형상화에 주목함으로써, 전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자기 존재성을 주장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타인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은 '동양 나름의 개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일기문학이나 모노가타리(物語)에 나타난 '나'라는 표현과 '나'(我)와 '타인'(人)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나도 타인도'(我も人も)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일본 고대문학, 개인의 발견, 1인칭 대명사, 가게로 일기, 겐지 모노가타리, '나도 타인도'(我も人も).

1. 머리말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는 1914년 11월 25일 가쿠슈인(学習院) 보인회(輔仁會)에서 열렸던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라는 강연[1]에서, 개인의 자유는 개성의 발전상 무척 필요하며 그 개성의 발전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른 영향이 없는 한 나(僕)와 네(君)가 좌우를 향해도 괜찮을 만큼의 자유는 자신도 견지하고 타인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말하는 개인주의'(私のいう個人主義)라고 규정하였다. 즉 개인 행복의 기초가 될 만한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 발전을 완수하려고 생각한다면 동시에 타인의 개성도 존중하여야만 하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의무를 알아두어야 하며, 자기의 금력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중시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닌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세키의 '개인' '개인주의'에 관한 언급은 근대 이후의 일본 내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병치시키며 '나'에 대한 자기인식이 '나'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해가는 사고 패턴은 일본 고전문헌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1) 夏目漱石, 『私の個人主義』, 東京: 講談社学術文庫, 1978, 147면, 149-150면, 153면.

1867년 제임스 헵번이 간행한 일본 최초의 일영사전인『와에이고린슈세이』(和英語林集成)[2]에 '인디비주얼'(individual)이 '하나, 한 사람, 한 명'(H'totsz; h'tori; ichi-nin)으로 되어 있을 뿐 '개인'(Kojin)이라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개인' '개인주의'라는 표현 자체는 근대 이전의 일본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개인주의'라는 표현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유입되어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나쓰메 소세키가 자신이 규정하는 개인주의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주의란 다른 어느 집합체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가치(경제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우선하는 태도"[3], "개인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적 자유의 발전이자 그에 대한 주장"[4]이라고 규정짓는 데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여, 전근대 일본사회에 개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와 집단, 인간관계 속에서의 '개인', 즉 '나'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 일본에도 당연히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은 현존하는 고전문학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내면 풍경'(자아의 발견)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발견'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5]이라는 아론 구레비치의 지적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가 언급한 "무엇이 이 개인을 집단과 분리시키고 독립적으로 만드는지, 즉 집단과 관련해 개인의 독립성을 의식하고, 자신의 개인적 존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인간적 자아의 출현에 대한 탐구"[6]는 개인주의의 단초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서양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시대와 사회・경제적인 토대의 변화에 따라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가치와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가치 간의 역학 관

2)「デジタル和英語林集成」, 메이지가쿠인 대학(明治学院大学)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http://www.meijigakuin.ac.jp/mgda/waei/search/?mode=02&edition=01&word=individzualism&zoom=&x=24&y=20(2020. 9. 5. 검색).
3) 河合隼雄 編,『「個人」の探求—日本文化のなかで』, 東京: NHK出版, 2003, 162면.
4) 알랭 로랑 지음, 김용민 옮김,『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158면.
5) 아론 구레비치 지음, 이현주 옮김,『개인주의의 등장』, 새물결, 2002, 28면.
6) 같은 책, 21면.

계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7]는 최형섭의 지적 또한 시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마자키 마사카즈(山崎正和)는 '부드러운 개인주의'(柔らかい個人主義)라는 표현으로 자기표현을 둘러싼 일본문화 속 개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를 충분히 실현하면서 그로 인해 타인의 자아를 침해하는 것을 피하며, 오히려 타인과의 미적인 동의 아래 자기 개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늘 타자를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그 때문에 타자와 싸우는 근대 개인주의의 오만함도 없고, 반대로 타자와 서로 허물없이 타자를 처음부터 의식하지 않는 집단주의의 나태함도 없"으며, "타자를 가까이 두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굳이 타인의 평가 속에 자기실현을 꾀하는" 것[8]을 '부드러운 개인주의'의 자세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개인주의'의 양상은 일본 고전문학텍스트, 특히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 여성문학 속에서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일기문학과 모노가타리(物語)에 나타난 '나'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나'에 대한 탐구에서 '나'를 표현해나가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시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을 심화시켜 타인으로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세기, 11세기 일본이라는 동양 고중세사회에 싹트고 있던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의 맹아의 양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일본 고전문학텍스트 속에 나타난 개인의 발견과 글쓰기, 그리고 자신의 내면 풍경을 직시하면서도 자신만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로 사고를 확장시켜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을 재인식하며 조망하는 등장인물들의 형상화에 주목함으로써, 전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 형성의 시발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자기 존재성을 주장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타인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모습은 '동양 나름의 개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일기문학이나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라는 표현과 '나'(我)와 '타인'(人)

7) 최형섭, 『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 ⅶ면(머리말).
8) 山崎正和, 『日本文化と個人主義』, 東京: 中央公論社, 1990, 48면.

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나도 타인도'(我も人も)라는 표현의 분석을 통해 동양 고중세의 개인의 발견과 그 전개과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2. 일본 고전텍스트 내 1인칭 표현 '나'

일본 고전문학텍스트에서 개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서 1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용법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문 등과 같이 굳이 1인칭 대명사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는 문 구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나'나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가나 자서전 류의 자기서사, 그리고 허구적인 문학텍스트 속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본 고전문학텍스트의 1인칭 대명사의 쓰임은 '나', 나아가 '개인'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지표, '나'라는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인식을 ㄷ러내는 지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대에 사용되었던 1인칭 대명사는 '아'(吾・我) 또는 '아레'(吾・我)라는 '아' 계열과 '와'(我・吾) 또는 '와레'(我・吾)라는 '와' 계열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표현은 일본 고대의 시가집인 『만요슈』(萬葉集)[9]에서부터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 세상에 살아 있는 나로세 내일부터는 저 후타카미 산을 동생으로 난 보리"(うつそみの人なる我(われ)や明日よりは二上山を弟と我(あ)が見む)[10], "내 사랑이여 나를 잊지 마시길 이소노카미 소매 흔든다 하는 후루 강 끊길 리가"(我妹子や我(あ)を忘らすな石上袖布留川の絶えむと思へや)[11] 등의 시가에서 실제적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요슈』가 우리나라의 이두와 비슷한 만요 가나(万葉仮名)로 표기된 만큼 '아'(我) 자로 표기된 한자와 상관없이 원래 일본어에서 쓰이던 '나'라는 1인칭 대명사는 '아'(あ)나 '와레'(われ)로 발음되고 일컬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아' 계열과 '와' 계열의 쓰임새의 차이는 '아' 계열이 사적인 경우

9) 佐竹昭広・木下正俊・小島憲之, 『萬葉集訳文編』, 東京: 塙書房, 1972, 33면, 330면.
10) 『萬葉集』 巻第二 165.
11) 『萬葉集』 巻第十二 3013.

에만 사용된 데 비해 '와' 계열은 사적·공적 양쪽 모든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점[12]이다. '아'는 나라 시대(奈良時代, 710-784) 이전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후에는 연체어인 '아가'(吾が)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아레'는 '와레'의 유의어인데 나라 시대 때부터는 그다지 쓰이지 않게 되었고 헤이안 시대에 들어와서는 관용적인 용법으로만 사용되었다. '와'와 '와레'는 예로부터 일본의 정통적인 1인칭 대명사였다. '와'는 헤이안 시대에 들어와서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와가'(我が)의 형태로만 남게 되었다. '와레'는 헤이안 시대와 그 이후에도 쓰인 1인칭 대명사이다.

일본 고중세의 대표적인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어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집된 『고전대조어휘표』(古典対照語い表)[13]에 따르면, '아'는 『만요슈』에서 14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연체어인 '아가'는 『만요슈』에 82회, 헤이안 시대의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에 1회, 『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4회,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2회,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16회, 『쓰레즈레구사』(徒然草)에 1회 쓰이고 있다. '아레'는 『만요슈』에 45회,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 1회, 『가게로 일기』에 3회, 『마쿠라노소시』에 1회, 『겐지 모노가타리』에 1회, 『오카가미』(大鏡)에 2회 쓰이고 있다. '와'는 『만요슈』에 77회, 『겐지 모노가타리』에 53회 쓰이고 있으며 파생된 연체어인 '와가'는 『만요슈』에 970회,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12회,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에 28회, 『고킨와카슈』에 140회, 『도사 일기』(土佐日記)에 9회, 『고센와카슈』(後撰和歌集)에 145회, 『가게로 일기』에 72회, 『마쿠라노소시』에 37회, 『겐지 모노가타리』에 422회, 『무라사키시키부 일기』(紫式部日記)에 19회, 『사라시나 일기』(更級日記)에 18회, 『오카가미』에 40회, 『호조키』(方丈記)에 7회, 『쓰레즈레구사』에 35회 쓰이고 있다. '와레'는 『만요슈』에 440회,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 10회, 『이세 모노가타리』에 29회, 『고킨와카슈』에 81회, 『도사 일기』(土佐日記)에 7회, 『고센와카슈』에 81회, 『가게로 일기』에 75회, 『마

12) 鈴木一雄 外 編, 『全訳読解古語辞典 第四版』, 東京: 三省堂, 2014, 1면.

13) 宮島達夫 編, 『古典対照語い表』, 東京: 笠間書院, 1971. 작품명 중 『만요슈』가 나라 시대인 8세기 중엽, 『호조키』와 『쓰레즈레구사』가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인 13세기 초와 14세기 초에 성립되었고, 나머지 작품은 모두 10세기에서 12세기 전후의 헤이안 시대에 성립된 것이다.

쿠라노소시』에 38회, 『겐지 모노가타리』에 356회, 『무라사키시키부 일기』에 16회, 『사라시나 일기』에 18회, 『오카가미』에 49회, 『호조키』에 2회, 『쓰레즈레구사』에 19회 쓰이고 있다.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용례의 분포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아' 계열보다는 '와' 계열의 1인칭 대명사가 더 폭넓게 더 오래 일본 고중세 때 쓰이고 있었다는 점, 산문과 운문을 가리지 않고 8세기 중엽의 『만요슈』에서부터 14세기 초의 『쓰레즈레구사』에 이르는 일본 고전문학텍스트 속에 '나'라는 존재를 표출하는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고중세 문학텍스트에 다용된 1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고려할 때, 알랭 로랑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알랭 로랑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개인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나'를 말하고 자기 행위의 주인이 '나'라고 보는 이들의 태도는 실제로 자신에 대한 주권과 개인의 독립성을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1인칭 단수로 말하는 이러한 경향을 "문화적 혁명"이라고까지 지적[14]하였다. 일본 고전문학텍스트 속에 다용되고 있던 '나'라는 표현을 '문화적 혁명'으로까지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시대 개인의 독립성을 드러내는 잣대로 쓰이는 데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8세기 중엽 『만요슈』라는 시가집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나'의 표출과 '나'에 대한 천착은 고대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의 단초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로는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리하르트 반 뒬멘은 르네상스 시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세속적인 고백이 이루어졌고 이는 특히 전기(傳記)에 대한 관심이나 초상화가 부각되었던 미술에서 두드러졌으며, '자신과 관련된' 르네상스의 성격은 글로 쓰인 수많은 자기초상과 자기성찰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특히 상세하게 쓰인 자서전과 '사적인' 서신이 그러하다고 하였다.[15] 이와 같은 자신과 관련된 자서전과 사신

14) 알랭 로랑 지음, 앞의 책, 34-35면.
15) 리하르트 반 뒬멘 지음, 최윤영 옮김,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40-41면.

(私信)은 10세기 중반 이후 일본 헤이안 시대에는 이미 여성이나 여성을 가장한 남성이 자기 삶의 경험을 기록한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으로 활발히 선을 보였다. 자기서사(自己敍事)라 할 수 있는 일기문학 속에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와카(和歌)라는 운문을 곁들인 사적 서신이 주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어, '자서전과 결합한 사적 서신'의 형태를 한 작품 속에서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자기를 주제화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미 주어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발전했다. 여기에 절대 기준이란 없으며 독자적 의식이라는 시민계급이 지어낸 허구를 개인적 자기성찰의 모든 형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근대적 개인의 역사성을 오인하는 것"[16]이라는 리하르트 반 뒬멘의 지적은 문화토양을 달리하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인' 또는 '개인주의'의 단초를 고찰하는 데 무척 시사적이다. 서양 개인주의 역사와 개념 규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동양의 그것을 같은 틀 속에 대입시켜 판단하려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개인이나 개인주의, 개인의 발견에 관한 논의는 저변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표현하는 '나'(我), 표현하는 개인

일본 헤이안 시대의 문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여성문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그 시대 문학, 특히 가나(仮名) 문자로 쓰인 산문문학의 주된 담당층은 중류귀족 여성들이었다. 그 시대 산문문학은 크게 우리의 고소설에 해당하는 모노가타리(物語), 그리고 일기문학, 수필로 나눌 수 있다. 운문문학은 와카(和歌)로 대표된다. 와카는 '일본의 노래'라는 의미로서 575/77조의 음수율을 지닌 정형시이다. 이 시대 개인 간에 오고 간 서신은 지문보다는 자신의 심경을 와카에 담아 표현하여 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와카는 상징표현을 폭넓게 구사함으로써 산문문학 속에서도 등장인물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헤이안 시대 산문문학은 와카라는 운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6) 리하르트 반 뒬멘 지음, 앞의 책, 68면.

헤이안 시대는 오늘날 교토(京都)인 헤이안 경(平安京)에 794년 도읍을 정한 이래 가마쿠라(鎌倉)에 막부가 개설되는 12세기 말까지 400여 년에 걸친 기간이다. 이 시대에 중류귀족 출신의 여성 작가들이 중심이 된 가나 산문문학이 발달한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었다. 그중 후지와라 씨를 중심으로 하는 섭정・관백(摂政・関白) 정치체제 아래에서 궁중 내 문화 살롱의 기능을 지녔던 후궁 중심의 귀족문화가 발달하였다는 점, 실질적으로는 일부다처제였던 혼인제도 속에서 삶의 불안정성을 절감하였던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가나 문자라는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도구가 갖춰진 점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귀족문화의 주된 담당층이던 중류귀족 출신의 궁정 나인이나 가정부인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배태된 삶에 대한 불안과 고뇌 등을 가나 문자를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산문문학의 시작을 알린 작품은 미치쓰나의 어머니(道綱母)가 쓴 『가게로 일기』(蜻蛉日記)로서 이 작품은 974년경에 성립되었다.

가나 문자로 집필된 일기문학으로는 『가게로 일기』 이전에도 남성 관료인 기 쓰라유키(紀貫之)가 오늘날 고치 현(高知県)인 도사 지방(土佐国)의 지방관으로 근무한 뒤 교토로 귀환하면서 쓴 『도사 일기』(土佐日記, 935년경 성립)가 있었다. 그런데 기 쓰라유키는 작중화자를 여성인 체 가장하여 일기를 썼다. 이는 일본문학에서는 '여필가탁'(女筆仮託)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가 남성인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여성으로 가장한 데는 화자의 심정 및 내면을 드러낼 때 남성이 한문으로 쓰는 것보다 여성이 가나 문자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 쓰라유키가 관료들의 공적인 기록 수단인 한문이 아닌 가나 문자를 표현수단으로 삼아 여성으로 자기를 가장하여 일기를 썼다는 것은 관료라는 공적인 신분을 벗어던지고 공인으로서 기록하는 일에 연연해하는 의무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의 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사 일기』는 여성인 척 가장하여 가나 문자로 기록하는 그 나름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종래의 일기 형식과 내용에 충실한 완전한 '일별 기록・일록' 기술을 기본으로 하면서 날씨나 사건을 기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기 전체를 관통하거나 통괄하는

‘주제의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남성의 사적인 한문일기 및 여성의 공적인 가나 일기와, 여성이 지나간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회고하면서 작품 전체에 일관된 주제를 관철하며 가나 문자로 기술한다는 『가게로 일기』로 대표되는 여성일기문학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가교(架橋)로서 기능”[17]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텍스트 가운데 『도사 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이 ‘가나 문자’로 ‘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여 집필한 작품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일기문학에 나타난 ‘나’를 가리키는 표현, 즉 ‘와레’(我)는 작중화자의 자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상대방과 마주한 개인으로서의 ‘나’에 천착하는 의식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2절에서 살펴본 『고전대조어휘표』에 따라 헤이안 시대 일기문학에 나타난 ‘와레’의 용례를 비교해보면, 『도사 일기』에 7회, 『가게로 일기』에 75회, 『무라사키시키부 일기』에 16회, 『사라시나 일기』에 18회 쓰이고 있다. 일기문학 중에서도 『가게로 일기』에 ‘와레’의 용례가 현저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에 작중화자의 자의식이 강하게 투영돼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가게로 일기』가 20여 년에 걸친 결혼생활의 시종(始終)을 다루고 있어 작중화자인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일관되게 남편과 ‘나’의 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게로 일기』가 『무라사키시키부 일기』, 『사라시나 일기』와 같은 다른 여성 일기문학보다 분량이 많다는 점도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1인칭 대명사 ‘와레’의 빈도가 반드시 작품의 양에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게로 일기』와 마찬가지로 스가와라 다카스에의 딸(菅原孝標の女)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늘그막에 회한에 가득 차 풀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분량에 있어서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사라시나 일기』에는 ‘와레’가 18회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나’라는 개인을 발견하여 드러내고 주장하는 작중화자의 면모는 『가게로 일기』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이미숙, 「일기와 일기문학의 경계—『도사 일기』와 『가게로 일기』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110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241면, 247면.

이와 같은 '와레'의 예 중에서 『가게로 일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なり)라는 표현은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개인'의 발견을 고찰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은 『가게로 일기』에 나타난 화자의 자의식과 젠더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필자의 2008년의 논문[18]에서 주목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단행본[19]에도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작중화자의 '개인'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나', 즉 '와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대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나는 뭐란 말인가'는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남편인 후지와라 가네이에(藤原兼家)에게 답가로 보낸 와카에 쓰였다. 남성이 여성의 집을 사흘 밤 잇따라 찾아가 함께 밤을 보낸 뒤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여성의 집에서 피로연을 열어 결혼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여야 비로소 정식으로 결혼이 인정되었던 헤이안 시대 일본의 결혼 과정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대목은 화자의 '나'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새신랑에게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954년의 일이었다.

또 사흘쯤 연이어 찾아온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같은 와카를 보내왔다.

이른 새벽녘 헤어져 가는 길에 보이는 하늘
애달픈 이내 마음 이슬로 되고 지고

이에, 다음과 같은 답가를 보냈다.

이슬과 같이 덧없이 사라져갈 당신 마음을
부질없게도 믿는 나는 뭐란 말인가[20]

18) 이미숙, 「'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なり)'—『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나타난 화자의 자의식과 젠더—」, 『일어일문학연구』 제6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19) 이미숙, 『나는 뭐란 말인가—『가게로 일기의 세계』』,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20) 미치쓰나의 어머니 지음, 이미숙 주해, 『가게로 일기』, 한길사, 2011, 57-58면.

초서혼(招婿婚) 또는 방처혼(訪妻婚) 형식의 결혼제도였던 헤이안 시대에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새벽녘에 일찍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귀가하자마자 남성은 여성에게 와카를 보내야 하였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와카를 바로 보낼수록 여성에 대한 남성의 애정 정도는 깊다고 인식되었다. 남성은 일찍 돌아온 데 대한 아쉬움과 여성에 대한 그리움을 주로 읊었고, 이에 맞춰 여성 또한 남성이 귀가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답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와카를 주고받는 행위는 남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 남편인 가네이에의 와카는 당대의 연애 방식을 충실히 구현한 내용이었고 당대의 결혼제도에 충실히 따르는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그러한 당신을 믿고 결혼한 나는 뭐란 말인가'라고 남편의 의례적인 와카의 표현에 대해 정색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나는 뭐란 말인가"에서 '나'에 대한 탐구가 인간 존재성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배태된 자신의 위치, 자신에 대한 남편의 애정 정도에 대한 물음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자의식의 정도를 확인"[21]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의식이 강하였기에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일부다처제라는 결혼제도 속에서 가네이에의 부인 중 한 명으로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용납할 수 없었으며 20년 뒤 그녀의 결혼생활은 해소되었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토해낸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오카모토 교코(岡本恭子)는 "젊은 새색시의 물음이라기보다 결혼생활의 저편을 봐버린 냉정한 시선"이 거기에서 느껴지며, "신혼 사흗날에 이미 별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작자의 생애를 건 물음"[2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후지와라(藤原) 씨의 섭정・관백 정치체제가 공고하던 그 무렵 같은 후지와라 씨이기는 하지만 중류귀족에 불과하였던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집안에 장

21) 이미숙, 앞의 책, 2016, 129면.
22) 岡本恭子, 「われはなになり—かげろふ日記作者の世界—」, 『駒沢国文』 第27号, 駒沢大学文学部国 文学研究室, 1990, 67-68면.

래 정계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큰 상류귀족 가네이에의 구혼은 생각지도 못한 더할 나위 없는 행운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가네이에는 훗날 섭정・관백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미치쓰나의 어머니 또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가네이에의 구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녀에게도 이 결혼은 신분 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부다처제 사회였던 만큼 그녀는 가네이에가 첫 번째로 결혼한 부인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이미 도키히메(時姫)라는 부인과 미치타카(道隆)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시대는 반드시 결혼의 선후로 정처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여러 부인들 가운데 친정 집안의 신분과 자식 출산 여부 등이 어우러져 결혼생활을 해나가다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네이에가 가장 먼저 결혼한 도키히메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중류귀족 집안의 딸인 데다 당시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뛰어난 미모와 와카 솜씨로 알려져 있던 터라, 자신이 가네이에의 정처가 되리라는 기대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가네이에와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고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가네이에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외침은 자기 친정 집안의 딸들 가운데 한 명, 가네이에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앞으로 여러 부인들[23] 중 한 명으로 일부다처제라는 헤이안 시대의 결혼제도 속에 편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 속에 규정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가네이에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부인들 중 한 명, 가네이에가 속한 상류귀족 집안의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으로서 처음부터 자기 위치가 규정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968년에 도키히메의 소생인 조시(超子)가 새로 즉위한 레이제이(冷泉) 천황의 비로 입궐하는 것을 계기로 도키히메가 가네이에의 신축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는

23) 미치쓰나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가게로 일기』에 언급된 가네이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은 5명이다.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 이미 가네이에의 부인으로 아들 미치타카(道隆)를 낳은 상태였던 도키히메, 미치쓰나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마치노코지(町の小路) 여자, 양녀의 어머니인 미나모토 가네타다(源兼忠)의 딸, 그리고 후지와라 구니아키(藤原姆章)의 딸로 추정되는 오미(近江), 무라카미 천황(村上天皇)의 딸인 호시(保子)로 짐작되는 선제(先帝)의 황녀가 그들이다. 이 밖에도 가네이에와 인연을 맺은 여성은 세 명이 더 있었다.

그녀가 정처가 된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정처가 되고자 하였던 미치쓰나의 어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부인으로서의 위치 또한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으로 확정되었다. 결혼 당초 그녀가 외쳤던 '나는 뭐란 말인가'란 물음은 다시금 그녀에게 던져진 것이다. '나'의 사회적 위치, 가네이에의 부인들 가운데 '나'의 위치, 친정 집안에서의 '나'의 위치, 딸로서 어머니로서 '나'의 존재 의미를 되묻던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이 무렵부터 자신의 결혼생활을 '일기'로 쓰기 시작하여 후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기록한 일기를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내 신세를 한탄하고만 있는지라, 새해가 밝아도 기쁘지 않고 변함없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으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아지랑이처럼 허무한 여자의 처지를 기록한 일기"[24]로 규정하였다. 『가게로 일기』의 '가게로'(かげろふ)는 '아지랑이'라는 의미로서 20여 년에 걸친 자신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실체가 잡히지 않을 만큼 허무함을 느낀다는 상징표현이다. 그녀가 자기 젊은 나날의 삶을 회고하며 정리하여 풀어낸 뒤 도달하게 된 한 인간으로서의 소회야말로 '나'의 발견, '개인'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10세기 중후반(936?-995), 오늘날 교토인 일본 헤이안 경에는 비록 자기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후지와라 미치쓰나(藤原道綱, 955-1020)라는 변변치 못한 아들 하나를 둔 한 여성, 한 '개인'이 60여 년간 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결혼생활을 '아지랑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허무하다고 인식하였다. '나'라는 개인을 발견하는 행위가 일기 집필보다 앞인지 뒤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미치쓰나의 어머니라는 한 여성은 신혼 초 제기하였던 '나는 뭐란 말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제기하였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나'에서 '타인'으로—일본 고전텍스트의 '나도 타인도'(我も人も)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발견은 자기 자신에게 천착하는 것, 사적인 세계를

24) 미치쓰나의 어머니 지음, 앞의 책, 165면.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기 또는 일기문학 등의 자기서사에 한정되지 않고 10세기 이후 헤이안 시대의 모노가타리(物語) 등의 허구적인 문학 양식에서도 구현되었다. 최경도가 지적[25]하고 있듯이, "소설의 등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의 대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소설이 사적 영역을 지향하는 글쓰기라는 인식은 전기와 자서전이 갖는 내부지향적 성격과 일치"한다. "전기와 자서전이 한 인물의 내면을 통하여 사적인 삶의 실체를 밝히는 수단이 된다면,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사적인 삶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10세기 이후 일본 헤이안 시대에 등장한 모노가타리, 그중에서도 모노가타리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11세기 초에 성립한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다양한 남녀 인간 군상들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각자 달리 나타나는 한 인간, 한 개인의 사적 세계를 무라사키시키부(紫式部)라는 한 여성 작가의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소설이었다.

『겐지 모노가타리』 이전에 등장한 일본 최초의 모노가타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서도 '와레'(我)의 용례는 10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전승담인 '다케토리 할아버지 이야기'와 '날개옷' 이야기를 비롯하여 불교경전 등에서 가져온 불교지식과 중국 신선담으로 대표되는 한문서적의 영향 등 외래문화 또한 수용"[26]되어 형성된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에는 아직 개인, '나'에 대한 천착은 미약하다. 모노가타리 내 개인의 발견, '나'에 대한 천착은 사적인 연애 이야기를 중심 틀로 삼고 있는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에서 첫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탐색하고 있는 『겐지 모노가타리』에 이르러 '나'(我)에 대한 탐구는 '타인'(人)에 대한 이해로 그 폭을 확장시켜나간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인 '옛 남성'(昔男) 즉 아리와라 나리히라(在原業平)와 히카루겐지(光源氏)는 "민족의 영웅과는 관계없는 인물이며 국가통치의 이상이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서 "공적 세계의 투쟁을 일찌감치 단념"하였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

25) 최경도, 「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 『외국문학연구』 제30호,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8, 125면.

26) 이미숙, 「일본 초기서사의 특질과 독자성—현존하는 모노가타리의 시조(始祖),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의 서사세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3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48면.

들 또한 “질투나 낙담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살아 있는 생활인”이었고, 따라서 이들 작품에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사적인 세계”[27]일 따름이었다. 즉 일기나 수필과 다름없이 ‘모노가타리’ 또한 사적인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 헤이안 시대의 산문양식인 모노가타리의 발달이야말로 ‘개인의 발견’을 드러내는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我)에 대한 탐구로부터 ‘타인’(人)에 대한 이해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겐지 모노가타리』 내 등장인물의 양상은 ‘나도 타인도’ 또는 ‘나나 타인이나’로 번역되는 ‘와레모히토모’(我も人も)라는 표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히토’(人)는 세상 사람들이나 타인을 가리키는 제3자적 용법이지만, 『겐지 모노가타리』에서는 특정한 상대방, 특히 상대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고 있는 2인칭 대명사처럼 쓰이는 예가 많아, 우리말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겐지 모노가타리』에 ‘나도 타인도’의 용례는 20회 확인[28]할 수 있다. 물론 『겐지 모노가타리』 이외의 헤이안 시대의 일기나 모노가타리에도 ‘나도 타인도’의 용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 『가게로 일기』에 1회, 『오치쿠보 모노가타리』(落窪物語)에 1회, 『오카가미』에 1회, 『겐지 모노가타리』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요루노네자메』(夜の寝覚)에 18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도 -도’라는 표현법은 『만요슈』의 시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요슈 각구 색인』(萬葉集各句索引)[29]에 따르면, 『만요슈』에는 ‘당신도 나도’(妹[いも]も我[あれ]も)의 용례 5회, ‘당신도 나도’(君[きみ]も我[あれ]も)의 용례 2회, 총 7회의 ‘-도 -도’라는 형태의 용례[30]가 있다. 『만요슈』

27) 山崎正和, 앞의 책, 38-39면. 단 히카루겐지가 완전히 비정치적인 인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28) 고전종합연구소 각종 본문 텍스트 어휘검색(古典総合研究所 各種本文テキストの語彙検索), http://www.genji.co.jp/kensaku.htm(2020. 9. 5. 검색).
29) 佐竹昭広・木下正俊・小島憲之, 『萬葉集各句索引』, 東京: 塙書房, 1983.
30) ①『萬葉集』 巻第三 276. “妹も我も一つなれかも三河なる二見の道ゆ別れかねつる”
②『萬葉集』 巻第三 437. “妹も我も清の川の川岸の妹が悔ゆべき心は持たじ”
③『萬葉集』 巻第三 470. “かくのみにありけるものを妹も我も千歳のごとく頼みたりけり”
④『萬葉集』 巻第四 508. “衣手の別る今夜ゆ妹も我もいたく恋ひなむ逢ふよしをなみ”
⑤『萬葉集』 巻第十七 3978. “妹も我も心は同じ比へれどいやなつかしく相見れば常初花に心ぐし(…)”
⑥『萬葉集』 巻第十一 2557. “たらちねの母に申さば君も我も逢ふとはなしに年そ経ぬべき”

의 용례는 수 자체도 적지만 이들 용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나'와 '타자'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아'・'아레', '와'・'와레'라는 '나'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단지 남성이 부인이나 연인, 여동생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妹)라는 2인칭 대명사나 '기미'(君)라는 상대방 여성과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앞에 등장하고 뒤에 '나'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가 뒤에 오는 '-도 -도'의 용법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겐지 모노가타리』에서는 먼저 '나', 자기가 제시되고 나서 뒤이어『만요슈』에 등장하는 '이모'(妹)나 '기미'(君)와 같은 특정 대상, 특정 존재, 상대를 강하게 의식하는 표현법보다 타자성이 강한 추상적인 표현인 '히토'(人)가 뒤에 오는 표현법으로 바뀌면서, '나'와 '타인'을 병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겐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도 타인도'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인식은 나라 시대의『만요슈』보다 헤이안 시대에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만요슈』의 노래에서 '이모', '기미'를 사용하여 직접 상대를 부르던 표현이 헤이안 시대에 들어와서 '히토'로 치환된 것은 완곡한 표현법으로 변화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나 남성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용법을 겸하여 쓰이면서도 '히토'라는 더 추상적인 표현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겐지 모노가타리』에서는 '나'와 '타인'이라는 의식이 더욱더 강하게 관념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회의 '나도 타인도'의 용례 20회[31]를 분석[32]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⑦『萬葉集』巻第十二 3110.“人言の繁くしあらば君も我も絶えむと言ひて逢ひしものかも”
— 佐竹昭広・木下正俊・小島憲之, 앞의 책, 1972에 의한다.

31)『겐지 모노가타리』의 용례는 阿部秋生 外 校注・訳,『源氏物語 ①-⑥』,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0-25, 東京: 小学館, 1994-1998에 의한다. 한국어 번역은 1-2권의 경우, 무라사키시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겐지 모노가타리 1・2』,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2017을 참조하였다.

32) 본 논문은 일본 고대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발견, '사적 세계'를 형상화한 허구로서의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개인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당대 문화적인 토양 속에서 창출된 작중인물의 형상화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천황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나인으로 추정되는 가타리테(語り手)로 하여금 모노가타리를 기술토록 하는『겐지 모노가타리』의 '모노가타리 형식'에 중점을 두는 분석 또한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노가타리의 내용', 형상화된 인물조형의 내실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0회의 용례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문에 쓰여 '유모와 우근 둘 다'라는 양쪽 다 여성을 의미하는 인용①, '나도 부친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인용②,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승려인 승도의 말 속에 쓰인 인용③이라는 3회의 용례[33]을 제외한 17회의 용례가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17회의 용례를 대상으로 남녀별로 나(我)의 주체를 나누어보면, 남성이 주체인 경우가 11회, 여성이 주체인 경우가 5회, 무라사키노우에의 입장에서 여성 두 명을 남성인 히카루겐지가 언급하고 있는 1회[34]로 나눌 수 있다. 남성이 주체인 경우는 히카루겐지가 '나'의 입장인 경우가 6회[35]로 가장 많으며, 가오루 2회[36], 좌마두, 가시와기,

---

33) ①「玉鬘」,『源氏物語 ③』, 109면. "이 차관에게도 일이 어떻게 된 건지조차 알려줄 여유도 없이 나도 상대방도 각별히 격의 없는 사이도 아니기에 모두 내려갔다.[この介にも事のさまだに言ひ知らせあへず、我も人もことに恥づかしくもあらでみな下り立ちぬ。]" : 지문. '유모도 우근(右近)도'의 의미.

②「椎本」,『源氏物語 ⑤』, 203면. "그저 일반적으로 세상사가 무상하고 허무하기만 하다고 아침저녁으로 듣고 보았지만, 나도 부친도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남는다 하여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을지 생각만 할 뿐이었다.[ただおほかた定めなきはかなさばかりを明け暮れのことに聞き見しかど、我も人も後れ先だつほどしもやは経むなどうち思ひけるよ。]" : 오이기미(大君)의 말. '나도 부친인 하치노미야(八の宮)도'의 의미.

③「手習」,『源氏物語 ⑥』, 348면. "운신의 폭이 좁고 세상을 버리기 힘들다고 나도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이 같은 수풀 속에서 수행에 전념하시는 처지로서는 무엇을 원망스럽게도 부끄럽게도 생각하시겠는지요.[ところせく棄てがたく、我も人も思すべかめる。かかる林の中に行ひ勤めたまはん身は、何ごとかは恨めしくも恥づかしくも思すべき。]" : 승도(僧都)의 말. '나도 타인도', 즉 '세상 누구나 다'의 의미.

34) ④「若菜上」,『源氏物語 ④』, 53면. "속마음으로는, 그 정도라도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해하며 평온하게 대하며 지내주신다면, 더욱더 어여쁘게 여겨지겠지요.[まことは、さだに思しゆるいて、我も人も心得て、なだらかにもてなし過ぐしたまはば、いよいよあはれになむ。]" :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입장에서 히카루겐지의 말. '무라사키노우에도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도'의 의미.

35) ⑤「末摘花」,『源氏物語 ①』, 270면. "참으로 그렇기도 하겠구나, 갑작스레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려면 그만한 신분의 사람들일 때야말로 가능한 일이겠지라는 둥, 가슴 아프게 여겨지시는 신분이 높은 분이신지라,[げにさもあること、にはかに、我も人も、うちとけて語らふべき人の際は際とこそあれなど、あはれに思さるる人の御ほどなれば、]" : 히카루겐지(光源氏)의 심중. '나도 [상대 여성인] 스에쓰무하나(末摘花)도', '서로 간'의 의미.

⑥「花散里」,『源氏物語 ②』, 157-158면. "밉살스럽지 않고 겐지 님도 상대 여성분도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셨다.[憎げなく、我も人も情をかはしつつ過ぐしたまふなりけり。]" : 지문. '히카루겐지도 [상대 여성인] 하나치루사토(花散里)도'의 의미.

⑦「須磨」,『源氏物語 ②』, 183면. "그때그때의 모습이 연이어 생각나는데도, 시름없이 겐지 님께서도 중궁께서도 지내셨을 법하였던 세상인 것을 겐지 님께서 자진하여 한탄하셨던 거로구나,[をり

유기리가 각각 1회씩[37]이다. 여성이 주체인 경우는 아사가오 1회(인용⑯),

をりの御ありさま思ひつづけらるるにも、もの思ひなくて我も人も過ぐいたまひつべかりける世を、心と思し嘆きけるを、]” : 히카루겐지의 입장에서의 왕명부의 심중. ‘히카루겐지도 [상대 여성인] 후지쓰보(藤壺)도’의 의미.

⑧「薄雲」, 『源氏物語 ②』, 460면. “마음 씀씀이가 괜찮은 면 등을 저나 그 사람이나 확실히 보았기에 참으로 깔끔한 관계입니다.[心ばへの憎からぬなど、我も人も見たまへあきらめて、いとこそさはやかなれ。]” : 히카루겐지의 말. ‘나도 [상대 여성인] 하나치루사토도’의 의미.

⑨「若菜下」, 『源氏物語 ④』, 209면. “마음이 허술한 데가 없어 이쪽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람도 편안히 아침저녁으로 정을 주고받기에는 무척 마음 쓰이는 구석이 있었기에,[心ゆるびなく恥づかしくて、我も人もうちたゆみ、朝夕の睦びをかはさむには、いとつつましきところのありしかば、]” : 히카루겐지의 말. ‘나도 [상대 여성인] 로쿠조미야스도코로도’의 의미.

⑩「若菜下」, 『源氏物語 ④』, 254면. “그건 그것대로 또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궁중 출사라 하여 나도 상대방 여자도 같은 주군을 가까이 모시며 지내던 중 자연스레 그럴 만한 계기가 있어 마음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어수선한 일도 많아질 만한 일이다.[それは、また、いふ方異なり、宮仕といひて、我も人も同じ君に馴れ仕うまつるほどに、おのづからさるべき方につけても心をかはしそめ、ものの紛れ多かりぬべきわざなり、]” : 히카루겐지의 심중. ‘나도 [나인으로 근무하는] 여자도’의 의미.

36) ⑪「匂兵部卿」, 『源氏物語 ⑤』, 30면. “혹여 생각지도 못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도 그분도 참으로 곤란해질 일이라고 깨닫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일도 없었다.[もし心より外の心もつかば、我も人もいとあしかるべきことと思ひ知りて、もの馴れ寄ることもなかりけり。]” : 가오루(薫)의 심중. ‘나도 [상대 여성인] 온나이치노미야(女一の宮)도’의 의미.

⑫「総角」, 『源氏物語 ⑤』, 227면. “(…) 세상 사람들도 슬슬 입길에 올리게 될 듯하니, 같은 값이면 옛날에 [돌아가신 친왕께서] 일러두신 일에 어긋나지 않게 나도 그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마음을 열고 출입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건만, (…)[「(…) 世人もやうやう言ひなすやうあべかめるに、同じくは昔の御事も違へきこえず、我も人も、世の常に心とけて聞こえ通はばやと思ひよるは、(…)」]” : 가오루(薫)의 말. ‘나도 [상대 여성인] 오이기미도’의 의미.

37) ⑬「帚木」, 『源氏物語 ①』, 69면. “끊으려 하여도 끊어지지 않는 전세로부터의 인연이 얕지 않아 비구니가 되기도 전 도로 데려왔다고 하여도, 그대로 함께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를 잘 넘기는 부부 사이야말로 연이 깊어 가슴 먹먹한 사이이겠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찜찜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지요.[絶えぬ宿世浅からで、尼にもなさで尋ねとりたらむも、やがてあひ添ひて、とあらむをりもかからむきざみをも見過ぐしたらむ仲こそ、契り深くあはれならめ、我も人もうしろめたく心おかれじやは。]” : 좌마두(左馬頭)의 말. ‘본인이나 상대방 여성이나’의 의미.

⑭「柏木」, 『源氏物語 ④』, 290면. “자연스레 있을 수 없는 소문까지 나서 나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편치 않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근방에도 [내가 죽으면] 그러면 용서해주실 것이다.[おのづから、あるまじき名をも立ち、我も人も安からぬ乱れ出で来るやうもあらむよりは、なめしと心おいたまふらんあたりにも、さりとも思しゆるいてむかし、]” : 가시와기(柏木)의 심중. ‘나도 온나산노미야도’의 의미.

⑮「夕霧」, 『源氏物語 ④』, 470면. “무슨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 뒤에는 나도 그 사람도 미운 마음에 질릴 것이다.[事の乱れ出で来ぬる後、我も人も憎げにあきたしや。]” : 유기리(夕霧)의 말. ‘나도 상대 여성

무라사키노우에 1회(인용⑰), 오이기미 2회(인용⑱, ⑲), 우키후네 1회(인용⑳)의 내역[38]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례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자각하고 상대방,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로 폭을 넓혀가는 용례는 남성이 주체인 경우에는 가오루 정도밖에 없으며, 무라사키노우에와 오이기미라는『겐지 모노가타리』정편과 속편의 여주인공 두 명이 '나'의 주체로 쓰이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겐지 모노가타리』정편의 남성 주인공인 히

도'의 의미로 일반적인 어법.

38) ⑯「朝顔」,『源氏物語 ②』, 485면. "옛날에 나나 저 사람이나 젊고 책잡히지 않았던 무렵일 때조차 돌아가신 친왕 등이 그럴 의향이 있으셨지만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부끄럽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거늘,[昔、我も人も若やかに罪ゆるされたりし世にだに、故宮などの心寄せ思したりしを、なほあるまじく恥づかしと思ひきこえてやみにしを、]" : 아사가오(朝顔)의 심중. '나도 [상대 남성인] 히카루겐지도'의 의미.

⑰「若菜上」,『源氏物語 ④』, 68면. "그런데 그 소동 중에 나나 그 사람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더라면, 소용없는 두 사람 사이였겠구나 하며 마음을 되돌린다.[さてその紛れに、我も人も命たへずなりなましかば、言ふかひあらまし世かは、と思しまほす。]" : 무라사키노우에의 심중. '나도 [상대 남성인] 히카루겐지도'의 의미.

⑱「総角」,『源氏物語 ⑤』, 288면. "역시나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든 이리 마음을 허하고 싶지는 않구나,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 또한 반드시 박정하다고 여기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도 서로 경멸하는 일 없이, 마음이 변치 않은 채 끝까지 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셨다.[なほひたぶるに、いかでかくうちとけじ、あはれと思ふ人の御心も、かならずつらしと思ひぬべきわざにこそあめれ、我も人も見おとさず、心違はでやみにしがな、と思ふ心づかひ深くしたまへり。]" : 오이기미의 심중. '나도 [상대 남성인] 가오루도'의 의미.

⑲「総角」,『源氏物語 ⑤』, 323면. "역시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죽고 싶구나, 이분이 이리 옆에 붙어 있으면서 거리를 두는 일 없게 되었기에 이젠 남이 될 방도가 없구나, 그렇다고 하여 이리 보통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함께하면서 실망스럽게 나도 그 사람도 여길 것이 마음 편치 않고 괴로운 일이로고, 혹여 목숨이 질겨 살아 남는다면 병을 핑계로 출가라도 하자, 그리하여야만 두 사람 다 변치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하시고,[なほかかるついでにいかで亡せなむ、この君のかくそひゐて、残りなくなりぬるを、今はもて離れむ方なし、さりとて、かうおろかならず見ゆめる心ばへの、見劣りして我も人も見えむが、心やすからずうかるべきこと、もし命強ひてとまらば、病にことつけて、かたちをも変へてむ、さてのみこそ、長き心をもかたみに見はつべきわざなれ、と思ひしみたまひて、]" : 오이기미의 심중. '나도 [상대 남성인] 가오루도'의 의미.

⑳「浮舟」,『源氏物語 ⑥』, 164면.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또, 내가 아무리 넝쿨이 무성한 깊은 산에 칩거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찾아와 나도 그분도 신세를 망치게 될 것이다,[あやにくにのたまふ人、はた、八重たつ山に籠るともかならずたづねて、我も人もいたづらになりぬべし、]" : 우키후네(浮舟)의 심중. '나도 [상대 남성인] 니오노미야도'의 의미.

카루겐지가 주체인 '나도 타인도'의 용례에서는 자신과 여성과의 관계를 회고하거나 언급하는 와중에 자신의 태도나 선택을 합리화하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인용④는 평생 함께해온 무라사키노우에가 옆에 있으면서도 어린 조카인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와 결혼하기로 한 뒤 무라사키노우에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 ④속마음으로는, 그 정도라도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해하며 평온하게 대하며 지내주신다면, 더욱더 어여쁘게 여겨지겠지요.[39]

인용④에서 '이쪽이나 저쪽이나'는 '무라사키우에 당신이나 내가 새로 결혼하는 온나산노미야나'라는 의미로서, 두 여성이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히카루겐지의 말은 마주 앉아 있는 무라사키노우에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무라사키노우에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뒷바라지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견인이 없는 상태로 히카루겐지의 집에서 살아온 탓에 늘 불안정한 처지였다. 히카루겐지의 정처였던 아오이노우에(葵の上)가 세상을 뜬 뒤 그 자리를 대신하며 정처 격으로 살아왔지만, 진정한 정처는 아니었던 탓에 불안한 처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온나산노미야라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데다 신분이 높은 황녀가 히카루겐지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평생 믿고 의지하던 히카루겐지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수치스러워하며 '남들의 비웃음거리'(人笑へ)가 될 것을 우려한다. 정처 격으로 살아왔던 안주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⑰그런데 그 소동 중에 나나 그 사람이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더라면, 소용없는 두 사람 사이였겠구나 하며 마음을 되돌린다.[40]

하지만, 인용⑰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사키노우에는 그 옛날 히카루겐지

39) 「若菜上」, 『源氏物語 ④』, 53면.
40) 「若菜上」, 『源氏物語 ④』, 68면.

가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3년간 교토를 떠나 스마(須磨)에 머물렀던 힘겨웠던 시절, 두 사람의 목숨조차 위태로웠던 시련기를 생각하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남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 본위의 논리를 펼치는 데 쓰이고 있는 '나도 타인도'라는 용례는 '개인주의'라는 관점에서 지적한다면, 나쓰메 소세키가 「나의 개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만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자유 또한 인정되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주의'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일컬어지고 있는 '개인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나도 타인도'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여성 이야기'(女物語), 여성문학으로서의 『겐지 모노가타리』의 성격[41]상 나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달리 말하면 『겐지 모노가타리』의 여성문학적인 성격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5. 『겐지 모노가타리』 오이기미(大君)의 '나도 타인도'(我も人も)

'나'의 탐구에서 '타인'의 이해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는 『겐지 모노가타리』 내 여성 주체의 '나도 타인도'의 예는 속편 여주인공인 오이기미(大君)의 내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편 여주인공인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의 만년의 심경을 이어받음으로써 정편과 속편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

41) 무라사키시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 『겐지 모노가타리 1』,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 35-36면. "『겐지 모노가타리』는 텍스트 표층의 주인공이 남성이기에, 이 작품은 남성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 남성이 권력을 획득해 가는 이야기,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이야기, 호색한인 남성이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가는 분방한 연애 이야기로 많이 해석되어 왔다. (…) 하지만 영화의 최고 정점에서 무라사키노우에의 죽음으로 삶의 고통과 슬픔을 절감하고 만년에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고 있는 히카루겐지, 오이기미의 죽음으로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찾으며 삶의 허무함을 절감하는 가오루의 모습은 이 작품이 그리고자 하는 도달점이 영화나 종교적인 도심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허무함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 텍스트가 여성 작자에 의해 쓰인, 여성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데 중점을 두었을 때, (…) 『겐지 모노가타리』는 히카루겐지라는 이상적인 남성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지만,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는 '여성 이야기'(女物語)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받는 속편 여주인공 오이기미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그녀가 주체가 된 '나도 타인도'의 용례를 분석해보면, 집단 속의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상대방 남성인 가오루(薫)라는 '타인'으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는 헤이안 시대 한 귀족여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겐지 모노가타리』는 정편 41권, 속편 13권, 총 54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히카루겐지(光源氏)를 중심으로 그와 인연을 맺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형상화되어 있는 정편 41권은 한마디로 '보랏빛 인연・혈연관계'(紫のゆかり)의 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원래 도노시키부(藤式部)로 불리었다가 『겐지 모노가타리』의 작자라는 의미로 무라사키시키부로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랏빛이라는 의미의 '무라사키'(紫)는 정편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빛깔이다. 보랏빛의 이미지는 첫째 권인 「기리쓰보」(桐壺) 권에서 시작된다. 낮은 신분과 부친의 부재로 친정 집안의 후견을 받을 수 없었던 탓에 천황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비극적으로 삶을 마쳐야 했던 히카루겐지의 어머니 기리쓰보 갱의(桐壺更衣)를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었고, 그녀와 닮은 히카루겐지의 첫사랑이자 의붓어머니인 후지쓰보 중궁(藤壺中宮), 그리고 후지쓰보의 조카인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라는 히카루겐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성 3인은 보랏빛으로 연결된 관계였다. 무라사키노우에는 열 살 이후 히카루겐지와 평생을 함께한 반려였고 그녀가 세상을 뜬 뒤 히카루겐지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준 존재로 명실상부한 정편의 여주인공이었다.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은 남성 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서 히카루겐지가 '보랏빛' 인연을 이어가는, 보랏빛 인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토 근교인 우지(宇治)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속편 13권은 세간에 히카루겐지의 아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친인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가 가시와기(柏木)와 밀통하여 태어난 가오루(薫)가 우지에 살고 있던 오이기미와 만나면서 시작된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로 가오루는 일찍부터 세상살이의 허무함을 깨달은 인물이다. 그는 정치적 이유로 우지로 물러나 불도를 닦고 있던 히카루겐지의 동생인 하치노미야(八の宮)를

찾아가 불도를 논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큰딸인 오이기미에게 반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치노미야가 세상을 뜬 뒤 오이기미는 후견해줄 사람도 변변치 않은 가오루와의 결혼생활에 확신을 지니지 못하고 가오루에게 이끌리면서도 그의 구애를 거절하던 중 병이 들어 숨을 거두게 된다. 오이기미에 대한 사랑을 단념할 수 없었던 가오루는 그녀의 여동생인 나카노키미(中の君)와 의붓여동생 우키후네(浮舟)에게 집착하게 된다. 이렇듯 속편 또한 남성 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편과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줄 수 있는 여성을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가오루에게 끌리면서도 오이기미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고 결혼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헤이안 시대 결혼제도와 연결된 후견인 문제, 그리고 그와 연동된 '히토와라에'(人わらへ) 의식의 문제가 얽혀 있다. 실질적인 일부다처제이면서 초서혼(招婿婚)·방처혼(訪妻婚) 형태였던 만큼 여성의 친정 집안이 얼마나 결혼생활을 다방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대에 결혼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여러 처들 중 정처가 되는 데는 결혼의 선후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타고난 신분과 친정 집안의 후견 정도, 그리고 자식의 유무가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 따라서 비록 부친이 황자(皇子)이지만 정치적으로 몰락하여 교토에서 밀려난 한미한 집안의 장녀인 오이기미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히카루겐지의 아들로 알려진 가오루와 결혼하기에 그리 내세울 게 없었고 뒤이어 부친마저 사망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신분이 낮은 여성이었다면 가오루의 그늘에서 그의 부인 중 한 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었겠지만, 오이기미는 천황의 손녀라는 고귀한 신분인 탓에 그녀는 무엇보다도 좁은 귀족사회 안에서 타인의 입길에 올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즉 '히토와라에'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이렇듯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폐쇄된 귀족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용⑱과 인용⑲의 인용문에 나타난 오이기미의 심중사유(心中思惟)에서는 당대의 혼인제도의 논리, 귀족사회라는 집단의 논리에 비추어 가오루와의 결

혼을 단념하였지만, '나'라는 한 개인으로서 본인의 바람을 피력하고 가오루, 나아가서는 인간 일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오이기미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⑱역시나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든 이리 마음을 허하고 싶지는 않구나,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 또한 반드시 박정하다고 여기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도 서로 경멸하는 일 없이, 마음이 변치 않은 채 끝까지 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셨다.[42]

종래 이 인용은 오이기미의 남성 불신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와는 달리 "나도 그 사람도 서로 경멸하는 일 없이, 마음이 변치 않은 채 끝까지 가고 싶구나"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그것은 가오루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불신의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 작용이며 서로 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미래로까지 지속시키고 싶다는 희구"[43]라고 지적한 모리 이치로(森一郎)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한편 이케다 세쓰코(池田節子)는 이 인용 속의 '나도 그 사람도'(我も人も)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자신이 상대에게 환멸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도 거부하는 것이며, 수동적이지만은 않은 여자의 주장이 여기에 있다. '나도 그 사람도'는 오이기미의 의식에서는 가오루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환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오루에 대한 오이기미의 보통 이상의 애정을 나타내는 것일 것"[44]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 없다는 오이기미의 심중사유로부터는 '가오루와 대등하게 마주보고 있'다는 의식보다는 남녀를 불문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 일반의 마음에 대한 오이기미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오이기미의 인식은 임종 전 다음과 같은 심중사유와 조응하면

---

42) 「総角」, 『源氏物語 ⑤』, 288면.
43) 森一郎, 「宇治の大君と中君」, 『源氏物語作中人物論』, 東京: 笠間書院, 1979, 168면.
44) 池田節子, 「大君—結婚拒否の意味するもの—」, 『源氏物語作中人物論集』, 東京: 勉誠社, 1993, 528면.

서, 그녀의 애정관과 더불어 '나' 이외에 '타인', 인간 일반의 변하기 쉬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다.

> ⑲역시 이러한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죽고 싶구나, 이분이 이리 옆에 붙어 있으면서 거리를 두는 일 없게 되었기에 이젠 남이 될 방도가 없구나, 그렇다고 하여 이리 보통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함께하면서 실망스럽게 나도 그 사람도 여길 것이 마음 편치 않고 괴로운 일이로고, 혹여 목숨이 질겨 살아남는다면 병을 핑계로 출가라도 하자, 그리하여야만 두 사람 다 변치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하시고,45)

인용⑲에 기술된 "실망스럽게 나도 그 사람도 여길 것"이라는 오이기미의 심중사유에서도 가오루라는 남성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는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실망하지 않은 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보기 위하여, 즉 변치 않는 가오루와의 사랑을 절실히 바라면서 오이기미는 죽음이나 출가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오이기미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식은 무라사키노우에의 만년(晩年)의 심경과 유사하다. 무라사키노우에가 히카루겐지와 한평생을 함께한 뒤에 사랑에 대한 절망감과 이로 인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절실한 바람, 그리고 인간이기에 느끼는 슬픔에 도달하였다면, 오이기미는 남성과 본격적인 애정 관계를 맺기도 전에 남성, 나아가서는 인간의 변하기 쉬운 마음을 예기하며 "변치 않는 마음"을 간절히 희구하면서 상대방의 구애를 거절하고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것이 다르다.

'나도 그 사람도', 여자든 남자든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마음이 변하는 존재라는 오이기미의 심경은 헤이안 시대 일반적인 여성의 의식과는 격차가 있다. 이 시대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게로 일기』의 미치쓰나의 어머니는 본인의 결혼생활의 허무함을 남편 가네이에에 대한 원망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가오루에 대한 오이기미의 시선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다. 오이기미가 '나'(我)의 현재 마음

45) 「総角」, 『源氏物語 ⑤』, 323면.

과 '그 사람'(人)의 현재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대의 귀족사회 집단에 편입되거나 세상(世の中)이 요구하는 결혼제도에는 순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헤이안 시대 귀족사회라는 집단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출가나 죽음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는 병사하였다. 오이기미는 '나'의 의지, '나'의 자유를 견지하기 위해 죽음을 염원할 수밖에 없었다. 귀족사회라는 집단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나'의 바람을 탐구하여 우선시하는 오이기미의 선택이야말로 '개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변하기 쉬운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상대 남성인 가오루라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까지 시선을 확장시켜나가는 오이기미의 사념(思念)에서는 '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면을 읽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겐지 모노가타리』에 형상화된 오이기미의 '나도 타인도'(我も人も)에 담긴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드러운 개인주의'로 볼 것인가, '딱딱한 개인주의'로 볼 것인가는 독자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1세기 전후한 일본 헤이안 시대의 교토에서 무라사키시키부(紫式部)라는 한 여성 작가는 후견인이 없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인 오이기미(大君)라는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 '나'라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 '나'라는 개인의 탐구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로까지 지평을 넓혀가는 한 여성, 한 개인의 삶과 사랑의 양상을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이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 헤이안 시대의 『가게로 일기』라는 일기문학과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모노가타리문학에 나타난 '나'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한 개인이 '나'에 대한 탐구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인식을 심화시키고 타인, 나아가 인간의 이해로까지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헤이안 시대 일기문학이나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라는 1인칭 대명사 표현의 실제적인 용법 및 '나'(我)와 '타인'(人)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나도

타인도'(我も人も)라는 표현의 분석을 통해 10세기, 11세기 일본이라는 동양 고중세사회에 싹트고 있던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의 맹아의 양상을 조망해 보았다. 한 개인이 결혼이나 사랑의 경험을 통해 소속된 집단 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자기 존재성을 주장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타인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모습은 '동양 나름의 개인의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개인주의 역사와 개념 규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동양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견이나 개인주의의 맹아 유무를 판단하려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개인의 발견에 관한 논의는 저변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무라사키시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겐지 모노가타리 1・2』,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2017.
미치쓰나의 어머니 지음, 이미숙 주해,『가게로 일기』, 한길사, 2011.

阿部秋生 外 校注・訳,『源氏物語 ①-⑥』,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0-25, 東京: 小学館, 1994-1998.

리하르트 반 뒬멘 지음, 최윤영 옮김,『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아론 구레비치 지음, 이현주 옮김,『개인주의의 등장』, 새물결, 2002.
알랭 로랑 지음, 김용민 옮김,『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이미숙,「'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なり)'—『가게로 일기(蜻蛉日記)』에 나타난 화자의 자의식과 젠더—」,『일어일문학연구』 제67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_____,「일본 초기서사의 특질과 독자성—현존하는 모노가타리의 시조(始祖),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의 서사세계—」,『동아시아문화연구』 제63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17-253면.
_____,『나는 뭐란 말인가—『가게로 일기의 세계』』,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_____,「일기와 일기문학의 경계—『도사 일기』와 『가게로 일기』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 제110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229-249면.
최경도,「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외국문학연구』 제30호,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8, 117-132면.
최형섭,『개인의식의 성장과 중국소설』,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4.

岡本恭子,「われはなになり—かげろふ日記作者の世界—」,『駒沢国文』 第27号, 駒沢大学文学部 国文学研究室, 1990, 67-78面.
宮島達夫 編,『古典対照語い表』, 東京: 笠間書院, 1971.
鈴木一雄 外 編,『全訳読解古語辞典 第四版』, 東京: 三省堂, 2014.
山崎正和,『日本文化と個人主義』, 東京: 中央公論社, 1990.
森一郎,「宇治の大君と中君」,『源氏物語作中人物論』, 東京: 笠間書院, 1979.
佐竹昭広・木下正俊・小島憲之,『萬葉集訳文編』, 東京: 塙書房, 1972.
_____,『萬葉集各句索引』, 東京: 塙書房, 1983.
池田節子,「大君—結婚拒否の意味するもの—」,『源氏物語作中人物論集』, 東京: 勉誠社, 1993.
夏目漱石,『私の個人主義』, 東京: 講談社学術文庫, 1978.
河合隼雄 編,『「個人」の探求—日本文化のなかで』, 東京: NHK出版, 2003.

고전종합연구소 각종 본문 텍스트 어휘검색(古典総合研究所 各種本文テキストの語彙検索), http://www.genji.co.jp/kensaku.htm(2020. 9. 5. 검색).
「デジタル和英語林集成」, 메이지가쿠인 대학(明治学院大学)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http://www.meijigakuin.ac.jp/mgda/waei/search/?mode=02&edition=01&word=individzuali sm&zoom=&x=24&y=20(2020. 9. 5. 검색).

【Abstract】

The discovery of an individual in Japanese ancient literature —From the quest of 'I'(我) to the understanding of 'other'(人)—

Lee, Mi-Suk*

This paper focuses on 'I' in diary literature and monogatari literature during the Heian period in Japan. We will consider how one individual tries to write as a way to express 'I' from the quest for 'I', or deepens self-awareness and broadens the range of recognition for others. Through this, we will look at the discovery of individuals and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m that sprouted in the Middle Ages of the East in the 10th and 11th centuries.

In order to think about the discovery of individuals in pre-modern Japan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dividualism, we focus on the discovery and writing of individuals in Japanese classical literary texts. In addition, while looking directly at one's inner landscape and expanding one's thoughts beyond one's own frame to understanding others, pay attention to the figuration of characters who re-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thers. Recognizing one's position in the group to which one individual belongs, asserting one's existence, and religh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erson to broaden the range of understanding to others is an oriental individual discovery. The basis for this is the expression of 'I' in diary literature or monogatari in Japan's Heian period, and 'I'(我) and 'other person'(人) in contrast to the expression of 'I and others'(我も人も) can be said.

Keywords: Japanese ancient literature, the discovery of an individual, One-person pronoun, *Kagerounikki*, *Genjimonogatari*, 'I and others'(我も人も).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

* HK Research Professor,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